

태풍 복상...이렇게 하면 농작물 피해 줄인다

논 물관리·과수 지지목 처방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불어닥치자 농림수산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와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볼라벤의 위력이 2002년 태풍 '루사'나 2003년 태풍 '매미'에 버금갈 것으로 보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펴고 있다.

이 들어갔다. 이듬해 불어닥친 태풍 '매미' 역시 피해 복구비용이 8624억 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17개 지사 직원들은 27일 농림수산물부의 태풍대비 농·어업 재해예방대책 매뉴얼에 따라 농작·축산·농업시설 부문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태풍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지붕 고정과 과수 지지목 설치 등 긴급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라고 당부했다. 거의 익은 고추·콩 등은 서둘러 수확하고, 고추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도 강한 비바람에 의해 가지가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받침대를 받쳐주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과수원 경사지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재해보험 혜택 모두 8곳

담양·순천·나주·영암 광양·보성·화순·곡성

대형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이나 NH농협 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피해액과 가입 시 정한 보상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연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70㎡ 면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4000여만원이다.

이 높았다. 시설하우스 작물의 도내 수혜지역은 기존 담양·순천·나주·영암에서 올해 광양·보성·화순·곡성 등 4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섬유질 많아 씹는 맛이 좋고 단맛도 풍부해 과거 임금급 진상품으로 올려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10대 재벌 총매출 GDP의 77%

올 1000조원 돌파

10대 그룹의 지난해 총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10대 그룹의 총 매출은 94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액수인 1237조1000억원의 76.5%에 달했다.

나는데 그쳤다. 올해 10대 그룹의 총 매출액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별 지난해 매출을 보면, 세계 1위인 삼성그룹의 국내 총 매출은 270조8000억원으로 한국 GDP의 21.9%에 달했다.

지역중소 사랑나눔 바자 중소기업중앙회 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다음달 4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광주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2012 광주전남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를 연다. 이날 바자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체로부터 기증 받은 의류, 식품, 잡화 등의 품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코노 & 비즈 피플

김대익 한국프라임제약 사장

“신약개발 맞춰 내년 코스닥 상장”

전남생의약센터 제휴...조혈제 완제품 생산 매년 매출 30% 고성장...11년새 64배 키워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신약의 임상시험에 맞춰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한국프라임제약 김대익(45) 사장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스닥 상장과 바이오신약 개발이 완료되면 프라임제약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곳 중 50위권에 진입했다. 고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240명이던 근로자 수가 2년 사이에 270명으로 늘어 3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뤘다. 김 사장은 올해 30억원을 투자해 연재캡슐 제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라인이 증설되면 매출이 3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기대돼 내년이면 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제 등의 제조 및 연구개발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EPO의 세계시장 규모는 11조원에 달한다”며 “개발 중인 EPO는 4세대형 EPO로 혈압 상승·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낮아 만성신부전 환자 등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천대학교 수시 1차 신입생모집

2012.8.27(월)~9.6(목)

명품 글로벌 교육

- ▶ 국내최초 가천대의대-하버드의대 공동과정 운영
▶ 가천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파격적인 현지 어학연수 혜택
▶ 2020년까지 국내 TOP10,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

우수 특성화 교육

- ▶ 국내최초 우수인재 조기발굴을 위한 의대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 경영대학, 건축대학 신설 및 법과대학 경찰·안보학과 신설
▶ 경영대학에 글로벌경영트랙 신설, 파격적인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입시문의 가천대학교 입학처 : 1577-0067 ※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2. 11.12(월) ~ 11.16(금)

Advertisement for Gachon University featuring a large graphic of a red staircase leading up to a building. Text includes '최고가 최고를 만든다 가천대학교' and lists several faculty members with their titles and achievements.